

태양광 발전설비 인력양성

군산시,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순조

군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유지보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부안군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센터에서 센터 구축 전까지 임시적으로 전문인력양성교육,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총 52회에 걸쳐 919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고

태양광 관련 기업의 시제품개발과 시험 성능평가를 지원 하는 등 174건의 기술개발 지원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시제품 개발지원 등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억 2000만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으며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교육기관 인증을 취득했다.

올해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2022년 9월부터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내에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공사가 시작됐으며, 센터가 구축되면 우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센터가 구축되면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 등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더 나아가 새만금 내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이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익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팔을 걷었다.

“따뜻한 정 나누는 설 명절 되기를”

정현을 익산시장, 귀성객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팔 걷어

정현을 익산시장이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익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팔을 걷었다.

정 시장은 올해 1월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익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해 직접 나서 어깨띠를 메고 홍보책자를 전달하며 귀성객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사실상 설 연휴 시작일인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익산역 광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거리 홍보는 2023 익산시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 홍보가 더해져 풍물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하며 홍보 효과를 높였다.

특히 도심 거리 홍보에는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 김수환 한병도 국회의원까지 힘을 보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NH농협 익산시지부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공동으로 홍보

하는 등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많은 손길이 이어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은, 익산을 방문하고 찾아주시는 귀성객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고향사랑의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시길”을 호소했다.

이후 정 시장은 전통시장 장보기에 참여해 밀착 홍보를 이어갔다. 국·소·단별 직원들이 정갈 있고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북돋고자 다리로 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 전통시장 명절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시장 상인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온누리상품권 및 다리로움 지역화폐를 이용해 전통시장 설맞이 장보기 행사 동참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시민 스마트정보 교육 6개 과정 무료 진행

익산시가 시민들의 스마트정보화 교육 기회 확대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5일부터 무료 시민정보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및 인터넷 왕초보, 한글문서작성 초급·중급, 스마트폰 기초, 스마트폰 활용, 쉬운 사진편집 등 6개 과정이다. 교육은 다음달 27일부터 과정당 30명씩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매일 2시간씩 2주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교육대상은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교육과정별 접수 및 교육 일정은 익산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신청·접수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전화(063-859-5287)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쉼터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과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쉼터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공단대로 482)에서 오는 2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오후 2~5시) 운영되고, 보건소(수송동로 58)에서는 2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오후 2~5시) 운영된다.

'쉼터프로그램'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면서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이거나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인지지원등급자에 한해 1년 동안 이용 가능하다.

또한 치매환자의 가족들을 위해 '치매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치매안심센터(공단대로 482)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오후 2~4시) 운영할 예정이다.

'쉼터프로그램'에서는 치매약학 방지와 사회적 고립 및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공유오피스'로 행정능률 '향상'

청사 분산배치 보완... 본청 1층 운영

익산시가 조직업무 환경 변화에 맞춰 공유오피스를 활용해 행정능률을 높인다.

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의 분산배치로 본청의 지역 간의 지리적 격차를 줄이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오피스'를 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정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유오피스'는 본청 1층 현관에 설

치돼 직원들이 행정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테이블, 의자 등으로 구성됐다.

발봉동 임시청사와 북부청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회의 참석 및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위해 본청 방문 시 공유오피스에서 행정전산 확인 문서 수정 등 긴급을 요하는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 직원들도 청사 분산배치로 인한 애로점이 공유오피스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발봉동 임시청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그동안 업무 처리를 위해 본청 방문 시, 문서 수정 작업이 생기는 경우 다시 발봉 공설운동장 임시청사로 돌아가야 했다”며, “공유오피스 설치로 민원 처리가 더욱 빨라지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신속한 행정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유오피스' 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본청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새단장 착수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의 자랑인 선유도 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서 새롭게 단장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선유도 해수욕장의 미관 및 안전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3년부터 30억 원을 투입해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예산 3억7500만원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3년에 시설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해수욕장 배후 부지에 광장 및 포켓 공원 조성, 노후된 백사장 호안 및 안전시설 보강 쾌적한 환경을 위한 미관시설 개선 등

관광객들이 선유도 해수욕장을 훨씬 더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고군산군도 관광의 중심으로 지난 2017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된 후로 접근성이 편리해짐에 따라 방문객이 급증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고군산군도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한국관광공사),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 18선(CNN)에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의 말도~명도 구간이, 2024년에는 전구간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사계절 관광지로서 각광 받으며, 남녀노



소 불편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이 고군산군도 및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을 전망이다.

이에 시는 선유도 내부의 교통 및 관광 편의를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38억 원을 투입해 내부관광로 개설을 완료했으며, 개설된 도로를 기반으로 해수욕장 시설을 한층 더 개선해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확대 주거안전 도모

익산시가 올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청년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거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 거구에 대한 수선 유지급여로 나뉘어 지원된다.

시는 올해 선정기준을 지난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이하에서 47%이하로 상향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원 임차료 역시 지난해보다 인상에 지역 거주하는 인가구의 경우 16만4,000원,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6만6,000원까지 지급된다.

기초수급자세대 청년이 취학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민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임차료가 별도로 지급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